

새 책

▶석유전쟁(하이케 부흐터 지음, 박병화 옮김)=석유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주목하면서, 특히 에너지 장악을 위한 미국의 야망을 주시한다.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후 미국은 전속력으로 화석연료 시대로 회귀 중이다. 저자는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이 세계의 경제와 지형을 바꿔놓는 현상, 이로 인한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윌리시즈. 1만9800원.



▶AP.역사의 목격자들(지오바니 델 오토 지음·신우열 옮김)=지금까지 언론에 관한 무수한 연구가 존재했으나, 실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취재 활동을 하고 기사를 쓰는지 실증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이 책은 실제 기자들의 업무현장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최초의 연구보고서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사의 주요사건들을 현장에서 취재한 AP특파원들의 생생한 구술증언을 토대로 기사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크레센도. 2만6000원.



▶제우스는 세상을 바꿨다(최복현 지음)=감염과 격리의 시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소환해 뉴노멀의 새로운 가치와 내 마음의 방역 방법을 찾아보는 인문교양서다. 저자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뉴노멀의 시각으로 바라본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와 개인의 새로운 행복 가치를 키워드 10개로 써내려간다. 인문공간. 1만7000원.



▶침묵(돈 드릴로 지음, 송은주 옮김)=토머스 핀천, 코맥 매카시, 필립 로스와 함께 미국 포스트모던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꼽히며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돈 드릴로의 최신작이다. 이야기는 2022년 슈퍼볼이 열리는 날 원인 모를 사건으로 모든 통신과 전자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 모인 다섯 남녀의 하루를 그리고 있다. 창비. 1만4000원.



▶다이얼 주식회사(남유하 지음)=한낱 과학소설상 수상 작가이자 장르문학의 떠오르는 신예 남유하 작가의 첫 소설집이다. 저소득 노인층이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존엄을 유지하며 죽을 수 있는 국립센터. 감염자들을 위한 국가 공인 안락사 기관. 임신 중단수술을 받으려는 순간마다 미래로 호출되는 여자 등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기이한 상상력과 예리한 통찰력이 빛나는 소설 네 편을 수록했다. 사계절. 1만2000원.



▶우리 아버지는 해남(박재형 지음, 박지움 그림)=그동안 제주 이야기를 써온 작가가 이번에는 주인공 바다의 눈으로 제주에 사는 여러 사람을 이야기한다. 평생 물질을 아들을 키운 할머니, 아들이 서울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 부산에서 물질하러 온 엄마,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 한국말이 서툰 아이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제주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게 한다. 배틀·북. 1만2000원. 송은범기자



상투적인 유행어 벗어던진 삶의 언어를

박권일 등 9명 공저 '언어 전쟁'

수혜자 등 나쁜 언어 현상 시적 언어 회복 필요한 때

언어는 그 사회의 얼굴이다. 욕설을 하지 말자, 품위있는 언어를 쓰자,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별 뜻 없이 쓰는 그 말에 우리 삶의 무늬가 배어났다.

문학평론가 고영직이 쓴 '태초에 행정이 있었다'의 한 대목을 보자. 행정에서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을 부를 때 '수혜자'라고 한다. 고영직 평론가는 이 말이 정책 수요자와 대상자를 소위 빗쟁이로 간주하려는 정책 공급자의 시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수혜자라는 말은 그래서 '나쁜 언어'다.

지금 우리의 언어는 사고를 확장하고 신호를 주고 받으며 공동체에 필요한 특정한 기호체계의 일가를 만드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근대 공교육을 통해 말하고 쓰는 기호가 널리 열렸

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작동하고 있을까. 고영직 등 9명이 공저한 '언어 전쟁'은 이같은 의문을 품고 우리가 처한 언어 환경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다.

과학자유키고가 정형철과 시인 황규관은 언어 자체가 상품이 되어 정신과 내면을 쪼먹고 있는 현상의 배후에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 문명이 있다고 본다. 서귀포 강정 주민 엄문희와 제주에서 활동하는 문학평론가 김동현은 제주 사람의 입장에서 국가의 폭력적인 언어를 비판하고 있다. 사회비평가 박권일은 뉴미디어를 통한 언어가 전통 미디어 시대와는 다르게 '주목 전쟁'을 펼치고 있고 '주목'이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정착되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혐오를 채택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비평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이른바 '38세대'의 정치 언어와 자기당적을 짚었다. 소설가 전성태는 농경의 상상력으로



쓴 '최후의 문장'이 될 방언의 운명을 예고했다.

지역의 방언, 시의 언어. 이들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자꾸만 '쫓아내고' 있는 언어다. 황규관 시인은 "테크놀로지의 쫓무니를 따라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언어"인 '시적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은 "일반화되고 납작해진 언어를 벗어던진 언어이고, 상투적인 유행어를 신경질적으로 배격하는 언어"이다. 황 시인은 "시야를 뿌연게 가리는 미디어의 언어를 걷어내고 삶의 심장이 펌뎀대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어"를 회복하자고 말한다. 삶창. 1만2000원. 진선희기자

정면으로 응시한 현실... 우리 안의 오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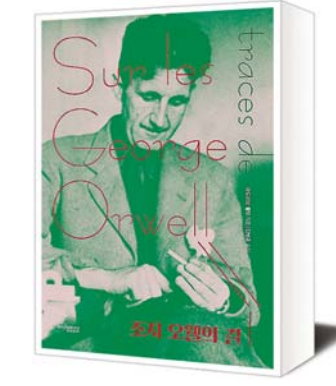
아드리앙 졸므의 '조지 오웰의 길'

2003년 봄, 소설 '동물농장'(1945)은 사담 후세인 치하에 살던 바그다드 사람들에게 지난 현실을 담아낸 우화로 읽혔다. 2007년 미얀마에서 불교 승려들이 군 부정부패에 대해 들고 일어났을 때 체제의 폭력성을 소설로 적나라하게 묘사한 70여 년 전 '버마 시절'(1934)이 소환됐다. 2017년 가을, 독립에 대한 찬반 투표로 촉발된 정치 위기를 겪은 카탈루냐는 끔찍한 내전의 상처를 그린 에세이 '카탈루냐 찬가'(1938)를 다시금 불러냈다.

'1984년' 집필에 마지막 힘을 쏟았던 스토클랜드 주라 섬 등 생애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고 결핵으로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한 조지 오웰(1903~1950). 그는 먼 나라들을 돌아다니던 여행작가가 아

니었다. 버마에서 식민지 경찰로 몇 년을 살았던 그는 프랑스에선 궁핍한 상태로 단기간 체류했고 이후 스페인내전에 참전했을 뿐이다. 1930년대와 40년대 저널리스트로 일했으나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스탈린의 소련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는 놀랍게도 그 체제의 은밀한 원동력을 날카롭게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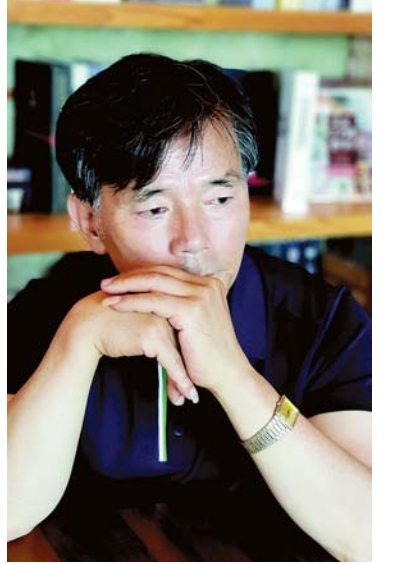
'르 피가로'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아드리앙 졸므의 '조지 오웰의 길'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웰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작가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여정을 담고 있다. 그가 살았던 장소를 방문하고, 흔적을 더듬고 기리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 시대의 맥락을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작품이 책상



머리에서 나온 예언이 아니라 작가의 삶과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조지 오웰은 그곳이 어디든 현실을 정면으로, 정직하게 응시했다. 차갑고 무심한 눈이 아니라 현실에 최대한 열중하면서 바라봤다. 저자는 "선입견이나 이데올로기, 특히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능력은 그를 예외적인 개인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병욱 옮김. 뮤진트리. 1만35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제주 변종태 시인 신작 시집 사월이란 나무에 조등처럼 피어난 꽃

4월이 오면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는 노래를 불렀었다. 오래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훗날에야 알게 되었다. 정명의 과정이 여전한 오늘이지만 제주4·3을 4·3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사월이란 나무에 조등처럼 피어나는 꽃을 소재로 제주4·3과 세월호 등을 새긴 신작 시집을 펴낸 변종태 시인.

제주 변종태 시인은 '십 년 동안 흘러간 문장'을 어르고 달래 엮으며 목련에서 제주의 4월을 봤다. 상투성을 벗어난다는 의도인지, 시인은 신작 시집 '목련 봉오리로 쓰다'에서 지천에 시로 꽃을 피워내면서도 붉은 동백을 불러내지 않았다. 동백만이 아니라 제주 땅에 피고지는 생명들이 모두 다 그날의 기억을 품고 있다는 의미일지 모른다. 제주로 향하는 뱃길에서 꽃다운 생명들이 무수히 졌던 것도 4월의 일이다. 이 섬의 봄은 서늘하다.

'사월, 그 나무'에 그 봄날이 있다. 쓸쓸하고, 어둡고, 축축한 사월이란 나무에 조등(弔燈)처럼 꽃이

피어난다. 그래서 '태생이 유배자인' 사람들('섬사람의 편지')은 '자울락자울락' 얹으려('자울락거리다') 발버둥쳤다. 오죽하면 봄이 올다가 웃고, 웃다가 우는('봄은 조울증으로 온다') 계절이겠나.

'사월이면 제주에 목련이 피는 이유를 알겠습니까.'란 구절이 담긴 표제시는 한 편의 제문처럼 읽힌다. 당신들의 얼굴, 당신들의 손길, 당신들의 이름. '한라산정에서 탐동 바다까지' 그것들은 '안개 입자만큼이나' 많고 많다. 시인은 떨리는 손에 붓을 쥐어 잡고 투명한 글씨로 안부를 묻는다. 우리는 '당신들' 덕에 살아있음을 알기에.

시인의 애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제주도 향하던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이명처럼' 듣고 '우린 어떤 언어로 노래해야 하는 걸까/ 어떤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다보아야 할까.'라는 '우울한 해도(海圖)'엔 희망이 가망으로, 기다림으로, 절망으로 바뀐 세월호 참사가 새겨졌다.

시인은 쉬이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목련 봉오리로 쓰다'에서 '씨도 씨도 다 쓰지 못할 그대들의 이름'이라고 했듯, 비릿해진 '애월 바닷가'까지 다다른 그의 시적 여정은 또다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천년의시작. 1만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정확한 품종, 우량종묘 공급으로 고객과의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땅과 정성이 담긴 제주의 명품을 빠르게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수익성 높고,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품질 종묘 생산으로 고객분들께 품질만족과 좋은가격으로 묘목을 공급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과수종묘협회 제주지회
감귤GSP프로젝트

❖ 주요 행사내용

- ▶ 2017년도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제주지회 세미나 주최
내용: 기후변화와 한국과수산업 과수묘목 무병모 보급 촉진
- ▶ 2018 농촌진흥청 국유품종 통상전시회 개최
내용: 원터프린스 미니향 제라몬외4종
- ▶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2018
내용: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류 재배기술 사업설명회
- ▶ 2019 농촌진흥청 국유품종 통상전시회 개최
내용: 탐나는봉 신예감 무봉 탐도3호
- ▶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 2019
내용: 국내육성 신품종 원터프린스 외 12종 감귤묘목 전시 및 소개
- ▶ 2019 제주국제감귤박람회
내용: 제주대학교 감귤GSP프로젝트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묘목 전시 및 홍보
- ▶ 2019 국내육성 우수 감귤 신품종 23농가 보급
내용: 원터프린스 미니향 하례조성 제라몬 외 3종
- ▶ 2020 제주도농업기술보급사업
사업명: 명품감귤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사업 품종갱신 교육공급
- ▶ 2020 농촌진흥청 국유품종 통상전시회 개최
내용: 사랑향 미니몬
- ▶ 2020 국내육성 우수 감귤 신품종 35농가 보급
내용: 원터프린스 미니향 하례조성 제라몬 외 5종
- ▶ 2020 제주도 감귤원 원자정비사업
사업명: 원자정비사업 우량품종 갱신사업 교육공급

[제주지회 우수 묘목업체]

민성종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1013-1번지	010-3694-5423 010-8948-1082	푸른자갈 정원농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촌리 3083	010-4450-4316 010-6550-4316
서귀종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697번지	010-2693-1336 064-733-7005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성읍 서성일로 991번지 1	010-6500-2329 010-4736-2479